

환경보전의 중요성

최혜순/강원 양구여고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다.

언젠가 이맘때쯤 난 오늘처럼 이렇게 산을 보고 또 강가를 거닐었다. 물이 무척 맑았다고 생각된다. 산골이라 물이 쉽게 봄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바위에 앉아 발을 적시자 뼈속까지 스며드는 한기가 있었다. 그래도 기분이 좋았다. 상쾌한 공기와 밑바닥까지 보이는 투명한 강이 있었기에.

한참 물장난을 하던 나는 문득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바로 눈앞에 커다란 사람이 서 있었다.

“참 좋지?”

“네에”

놀람과 반문이 섞인 나의 대답에 할아버지는 그냥 빙긋이 웃기만 하셨을 뿐 별다른 말은 없으셨다. 한참 서 계시던 할아버지는 나의 의아한 눈길을 받으며 오던 길을 되돌아 가셨다. 나는 할아버지의 꺾은 자세와 허술한 것 같으면서도 어딘지 단정한 차림에서 이 봄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참 좋지?”하는 허공에 뜬 것 같은 목소리가 귀에 쟁쟁거렸다. 그런후 잊어버렸다가 한 주일이 지난 일요일날 언뜻 생각나서 다시 한번 시간을 맞추어 강가로 나갔다. 먼저 와 계셨다. 나를 발견한 할아버지는 기억하고 계셨는지 반가와 하셨다. 개울에 나란히 앉은 우리는 하늘과 산과 개울과 진달래를 이야기 했다. 물 속에 손을 넣어 밧모르고 다가드는 송사리새끼를 잡으려고 허우적거렸으나 잡히는 건 하나도 없었다. 그런중에 나는 할아버지가 이 고장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고 도시를 무척 싫어하는 것을 알았다. 그때 할아버지는 아프시다 하셨다. 하지만 나의 눈에 비친 할아버지는 외로운 분으로 보였지 결코 아파보진 않았다. 그렇게 세 번을 만났다. 그 이후로 나는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 시내로 나왔고 며칠만에 강가에 갔을때 넓직한 바위만 남았을 뿐 할아

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강했던 할아버지의 인상이 거의 잊혀져 갈 즈음에 나는 이 계절을 기억해 냈고 오늘도 무심히 발길을 강둑으로 옮겼나 보다. 신발을 벗고 발을 물속에 담갔다. 그때처럼 물이 차갑다. 너무 기분이 상쾌하다. 문득 지난달 할아버지와 컷대화가 생각난다. 할아버지도 나와 같은 기분 때문에 좋다는 의미로 물으셨을까 하는 반문이 이상하게 꼬리를 물고 일어선다. 그때의 할아버지는 나보고 참 좋은 곳에 산다고 하셨다. 왜 좋으냐고 묻는 내게 할아버지는 대자연과 스스럼없이 접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느냐고 물으셨다. 나는 한참 대두되고 있는 대도시의 오염현상을 들은 적이 있어 그럴거라는 추측으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나의 대답을 어떻게 받아들여셨는지는 몰라도 할아버지는 짧게 말씀하셨다. 서울은 사람들이 살 곳이 못된다고 말이다.

사람이 살 곳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했다.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달세계의 연구도 사람이 살 곳을 찾아서일 것이고 과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실험에 몰두하는 것도, 그리고 수없이 뒤바뀌어지는 지구촌의 여러 모습들도 우리가 살 곳을 개척하는 작업이리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험경지이 놓은 자연의 여러 제약들을 극복하여 만물의 영장으로서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곧 사람이 살아야 할 모든 조건으로 만족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생활은 안락과 행복만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고도의 문명을 이룩하기는 했으나 거기에 따르는 환경에의 오염이 그에 못지 않은 심각성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도리어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의 잉여산물, 즉 각종 쓰레기, 대기오염, 토양과 수질오염 그리고 그로 인한 자연생태의 악순환 등은 지금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요인이다.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심화 된다면 자연환경의 순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더 살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인공으로 싸여져가는 자연상태를 보전하자는 운동이 일고 있는데 그예로 자연보호 운동, 그린벨트 블루벨트 등의 설정, 그리고 수질보호 운동등 여러가지가 있다. 거기에 참가하고 싶은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쓰레기의 축적이다. TV의 현장추적이나 소도시의 하천가를 보면 부패되지 않는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그것으로 인해 하천은 물론이거니와 토양의 오염까지 유발해서 우리들이 생활하는데 간접적으로 해를 주고 있다. 이런 실태하에서 인간에게 주는 피해란 육체적인 것에서부터 정신적인 영역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 예가 지금 도시인들이 앓고 있는 문화병을 들 수 있다. 소음 공해로 인한 정신 착란증 그리고 한정된 공간에서의 소외감, 또한 잦은 질병들은 자연과 접하는 시골사람들에게는 드문 일이다.

이런 점에서 볼때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자연환경과 문명과의 조화이다. 넓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좁은 의미로는 환경보전의 절실한 요구다. 지금까지의 자연을 인간에게 무엇이나 제공만 하는 것으로 생각

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산일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은 주는것만큼 받으려 하고 사람이 대우해 주는 대로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것은 죽어지면 자연의 원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만약 자연 본연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환경과 인간은 별개로 살아갈 수 없는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고도화의 잉여물질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공장의 폐수,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배기가스, 도시인들의 무심한 쓰레기의 처리, 그리고 그것보다 앞서 우리 사람들의 각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두 개가 하나가 된다 함은 하나보다는 둘이 낫기 때문이다. 나와 너, 그리고 단체와 단체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로써 실행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모두가 하나되어 나무를 보호하고 모두가 한 손이 되어 휴지를 줍고 또 한마음으로 모든 걸 아낌으로써 모든이의 삶의 터전인 자연을 보전하는데 나 하나의 조그만 정성을 다해야 하겠다.

개울가를 돌아나오면서 본 하늘이 무척이나 높게 보였다.

물가에서 일어나려는데 어느새 동생이 와 있었다.

“여기서 뭐해?”

“물이 너무 시원해, 너 세수 안할래?”

“누나도 참, 세수할 때가 없어서 여기까지 나왔어?”

“참 좋잖아, 안그래?”

“하긴 그래”

우리는 어깨동무를 나란히 하고 제방을 걸었다. 멀리서 햇살이 물위에 산산이 부서진다.

化學藥品大辭典

Encyclopedia of Chemical Products

推薦하신分 延大工科大學 李承務 博士
 " " 조영일 博士外
 大學教授10餘名 推薦

韓國技術圖書情報社

①③⑤ 서울市 강남구 역삼동 649-14 보원빌딩 403號
 (住宅銀行 建物)

電話 : 567-0709 · 552-2283
 (夜) 738-9607